



실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ESCO전문가 양성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센터장 김래현)는 ESCO협회,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1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별관에서 'ESCO 관리자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ESCO사업 분야를 이끌어갈 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ESCO 전문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래현 센터장을 만나 ESCO관리자 교육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오후는 기자/hi9187@hanmail.net

“ESCO사업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나 아직 ESCO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ESCO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자기 영역을 찾아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ESCO사업자들에게 전문가들의 새로운 영역제시와 스스로 업체 환경에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ESCO 관리자 교육을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 김래현 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ESCO사업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ESCO 관리자 교육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영역, 정책결정방향, 전략수립을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실무자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주수 팀장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운용방안과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심진수 서기관이 정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서울산업대 박중구 교수가 기후변화협약과 산업체 대응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가 Green Ocean 전략, 일본 토요하시대 김희준 교수가 일본 오사카 ESCO 활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ESCO사업의 해외 진출 방향에 중점을 뒀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떠오르고 있는 CDM사업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며 “ESCO사업 해외진출을 위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새로운 영역의 내용들을 관리자들에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에서 착안, 환경 분야에 적용한 ‘Green Ocean’ 전략과 ESCO사업이 활발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준비했다고 김 센터장은 덧붙였다.

●●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의 핵심

우리나라에서 ESCO 등 에너지분야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의 이러한 교육은 관련 업계로부터 환영받을 만하다.

김 센터장은 “에너지 및 환경기술과 국제적인 통상협상 능력까지를 갖춘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필수적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춘 교육기관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센터는 경영,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과 경영,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전문 석·박사의 실무형 전문 인력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1년에 1500여명에 이르는 기업전문가들에게 에너지전략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립 3주년 만에 에너지관련 전문도서 80여권을 발행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산업대학교는 산자부의 기술인력 지원정책 이전부터 에너지환경대학원을 운영해 왔다. 서울산업대가 기술인력 분야의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게 된 바탕도 바로 에너지환경대학원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에서 비롯됐다.

서울산업대학교 양성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래현 센터장도 에너지환경대학원 초대 원장을 맡았던 전문가이다.

현재 에너지환경대학원에는 신에너지공학과, 에너지안전공학과 등 6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23일 첫 ESCO 관리자 교육에 앞서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와 ESCO협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인력양성 및 양 기관의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김래현 센터장은 “이번 ESCO협회와의 MOU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ESCO 관련 교육과 교육자들을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현장실무에 맞는 계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